

# 한우 1등급 생산비율 80%로 늘린다

## 2010년까지... 농진청 FTA 대응 기술개발 전략 공개

## 병·해충 저항 강한 벼품종 2015년까지 15종 개발도

최고기 1등급 생산비율이 2010년까지 80%로 높아지고 2015년까지 고품질 쌀 15품종이 새로 개발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주요품목별 기술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진청은 앞으로 한우의 경우 성장단계별 비육 프로그램을 개발, 거세우 육질 1등급의 출현율을 현재의 7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젓소나 수입산의 한우 둔감을 막기 위해 첨단 관별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이나 생산이력제 등 안전성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한다.

돼지와 닭의 경우 만성 소모성질환 예방, 항생제를 대체할 생리활성물질 개발, 부분육 생산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

쌀은 현재의 '윤광', '고품벼'처럼 밥맛, 모양, 병해충 저항성 등의 측면에

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벼 품종을 2015년까지 15개 더 개발, 이 품종들이 전체 벼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전국 48곳에서 운영되는 '타이라이스'(농진청이 개발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48곳의 핵심 재배기술도 전국 쌀 브랜드 단지에 전파한다.

과일의 경우 후지(사과), 신고(배), 캄벨얼리(포도), 온주말감류(감귤) 등 한 품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숙시기와 용도가 다양한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기술개발의 초점이 맞춰진다.

최고 품질의 과일 생산비율을 현재

의 10%에서 2015년 70%까지 높이고 친환경 생산기술을 정착시켜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제 교역이 늘고 있는 고추,마늘 등 양념류는 단지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오이·양파·토마토 등 외래 품종의 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원예육종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의 국산품종 육성을 지원한다.

농진청은 이번에 수립한 49개 품목의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관·연 합동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공기업 하반기 채용 늘린다

작년보다 3.2% 증가한 1.739명 뽑아

을 하반기 일반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공기업이 지난해 수준보다 다소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구직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 대부분이 연령과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출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사회형량적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이른바 '스펙'(지위자 외적조건)이 좋지 않은 구직자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11일 인크루트가 공기업 42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9%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반면 23.8%는 '채용하지 않는다', 14.3%는 '채용계획이 미정이다'고 답했다.

채용계획을 확정된 공기업의 채용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어난 1천739명으로, 채용계획을 확정짓지 않은 공기업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對美·日 수출비중 사상 최저

7월말 현재 12.9%, 7.2%로 하락세

미국의 부진한 경기지표 발표가 곧 바로 한국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점차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락,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역시 계속 비중이 하락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유럽연합(EU)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은 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점하는 비중은 1990년 29.8%에 달했으나 95년 19.3%로 떨어진 후 2000년 21.8%로 잠시 반등했다가 2002년 20.2%, 2004년 16.9%, 2006년 13.3%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1-7월에는 이 비중이 12.9%로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호조로 매년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한자릿수로 둔화하고 있는 것이 비중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시장의 수출비중도 90년 20%에 달했으나 95년 12.2%, 2000년 11.9%에 이어 2002년 9.3%로 떨어졌고 2004년 8.6%, 2006년 8.2%로 하락했다. 올해 1-7월에는 이 비중이 7.2%로 더 떨어졌다.

이에 비해 EU의 점유율은 90년 15.4%에서 2000년 13.6%로 약간 떨어졌으나 2004년 14.9%, 2006년 14.9%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는 15.4%로 상승했다.

## “증권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

윤용로 금융감독위원장 규제·감독 개선 밝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자본시장 환경을 감안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감독기구의 규제 및 감독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간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11일 조선히otel에서 열린 한국증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 이론 양적 성장에 비해 실적 성장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감독기구는 자율 규제와 선제적 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감독기구가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까지 제재하는 바람에 감독 역량이 핵심분야에 집중되지 못하고 감독의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증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나 업무영역, 상품개발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계획은 1~2개월 안에 내놓겠다”며 “또 자통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세부 시스템을 내년 중 정비해 2009년에 자통법이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 ‘중소수출금융 아카데미’ 오늘 열려

‘중소수출금융 아카데미’가 1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환위험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수출입은행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환리스크 관리 ▲무역금융 ▲국제계약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위험 관리와 국제계약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부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국 농어업법인 678곳 적자

## 평균 부채 9억6,000만원...1년새 9% 늘어

지난해 전남지역의 농어업법인 수가 소폭 늘어나면서 전국 농어업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적자 농어업법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농업부분의 수익성은 되레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어업법인은 1천194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1천174개)보다 1.7%(20개) 늘어난 것으로, 전국 농어업법인(6천270개)의 19% 수준이다.

전국의 경우 농어업법인(영농조합, 농

업회사)이 5천308개로 전년보다 0.9% 늘어나면서 전체 농어업법인도 0.1%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16억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또 농업 결산법인 가운데 순손실을 기록한 법인은 626개로, 전년(573개)보다 9.2% 늘어나면서 농업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반영했다.

특히 어업 결산법인 가운데 순손실을 낸 법인은 52개로 전년의 46개에 비해 13%나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당 부채도 급증했다.

지난해 농어업법인의 평균 부채는 9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9.0% 늘었고, 어업법인은 6억9천만원으로 1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농어업법인이 188.2%로 전년보다 1.2% 높아졌으며, 어업법인은 265.5%로 0.9%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인당 정부보조금은 농어업법인이 3억1천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으며, 어업법인은 1억9천120만원으로 11.5% 늘었다. 법인당 정부보조금도 농어업법인이 5억890만원으로 14.5% 늘었고 어업법인은 2억7천590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LG전자 '사인 시그너처' 출시

LG전자가 블랙라벨 시리즈 '사인 시그너처(Shine Signature)' 출시를 기념해 11일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관에서 '사인 시그너처 스타일러스 쇼' 개최한 가운데 모델들이 '사인 시그너처' 휴대전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9.9mm의 두께에도 불구하고 130만 화소 카메라, 외장메모리 슬롯, 블루투스 등 첨단 기능도 장착돼 있다.

/연합뉴스

## ‘환승론’ 금리인하 효과 봤다

대부업체들 이탈고객 잡기위해 이자 낮춰

‘대부업체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저축은행 등 제도권 2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승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색다른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승론으로 갈아타기 위해 대부업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하면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환승론 수준으로 내려주는 현상이다.

11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이치론에 따르면 환승론이 개시된 6월부터 상품 이용 신청을 한 후 자진 철회한 건수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이치론 이현돈 사장은 “환승론은 상담 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후 자진철회는 대부분 기준에 대출을 이용하던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환승론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승론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대한 대출 상품이다.

환승론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있는 우량 고객이 빠져나가게 돼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환승론 수준으로 인하여 고객 이탈을 막고 있는 것이다.

환승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환승론 승인율이 60%선으로 올라서는 등 환승론이 정착되면서 대부업체들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량고객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금리차가 약 10%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요구금으로도 그만큼의 금리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 지방인재·이공계 출신 공기업 취업 쉬워진다

## 운영위 '채용목표제' 추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

하고 포괄적으로 업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 도입에 노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인력활용계획에 이공계·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류용섭 기획처 인재경영팀장은 “이번 인사지침 개정내용중 채용부문은 이미 발표한 채용제도 개선안중 항구적으로 유지될 부분을 고른 것”이라고 전하고 “서류심사 기준의 다양화는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성적 위주로 뽑지 말고 자격증, 제2외국어 등을 통해 전력을 다양화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외에 관련 학계·단체, 비상임이사 등의 추천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용진 기획처 정책총괄팀장은 “비상임이사들이 임원추천위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기관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상임이사들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현행 5~7명에서 5~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 수산물 건조장에도 면세유 공급

## 전국 1,828곳 지원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자를 추가한 ‘농·축산·임·어업기가지체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김, 멸치, 다시

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다.

해양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국 1천828개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게 됨에 따라 건조장 운영업자들이 연간 466억원 상당의 면세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사)한국소방공사협회	[협회] 사업운영 및 회계담당 직원 (신입/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3	02-3471-4251
(주)기엔지니어링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4	062-529-8689
(주)삼일전선	정비회기 유지보수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14	062-971-0790
(주)웅은엔터테인먼트	홍문엔터테인먼트 기획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4	062-361-0612
(주)영미다스	용접 프레스 병동 관련 업무 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9/15	062-952-9442
(주)한길정보통신	SHOW 한길정보통신 경리/회계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15	050-2513-0000
태정산업(주)	생산직 사원 (보충역 가능)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15	062-953-2300
(주)인성종합상사	무역사무 및 해외영업 사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15	062-371-2242
(주)동원테크	경리 업무 및 사무업무 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9/15	018-620-2130
sm 오피스	전산·사무용품전문점 직원 (남·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11-628-6341
광우머티스	경영지원 사무경리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62-267-9222
두손테크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17	062-953-1970
대동중공업(주)	[광양]경력직 및 주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55-720-0512
(주)비엔비	광주지역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1	042-488-005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